



# 웁살라 기후의정서 (Uppsala Climate Protocol) – 기후 중립을 위한 포괄적 공동 설계



## 웁살라(Uppsala), 스웨덴

### 요약

스웨덴 웁살라 지방 정부는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협조하여 기후 목표와 목표 달성 방법을 공동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후의정서(The Climate Protocol)는 구체적인 기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동 설계 모델입니다.

### 발전 과정

기후의정서는 지방 정부와 함께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 및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2010년 발족한 이래 16개 기관이 가입, 2020년까지 탄소배출 30% 저감이라는 시의 목표 달성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 간 성공적인 수행을 거쳐 회원 및 목표 관련 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은 40개 기관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웁살라 시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없는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fossil free and renewable Uppsala), 2050년까지 기후 긍정(climate positive Uppsala) 도시 만들기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차 기간(2010-2012) 동안 회원들은 탄소배출을 4% 저감하였고, 최근 기간(2015-2018)에는 무려 10%를 저감, 2년 동안 3.5% 감축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회원 기관은 민간 기업, 대학, 공공 기관 및 시민단체 등을 아우릅니다. 현재 4차 기간(2018-2021)이 진행 중입니다.

### 활동

회원 기관 대표와 기후조정관들이 연 2회 라운드테이블 협상을 통해 각 회원별 및 집단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개발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기후조정관들은 연 4회 만나 지식 공유, 조정 및 개발 작업을 진행합니다. 시 소속의 상설조정위원회와 관리팀을 둡니다.

기후의정서 회원 기관들은 전문 분야와 관심사에 따라 주제별 실무그룹에 참가합니다. 현재, 건축자재, 에너지, 운송, 교통, 도시개발, 플라스틱과 식품 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웁살라



### 인구:

168,096 명

### 면적:

48.77 km<sup>2</sup>

### 시장 협약 가입:

2018년

### CO2 배출 저감

#### 목표:

2070년까지 1990년 대비 110% 감소  
2030년까지 기후 중립  
2050년까지 기후 긍정

각 실무 그룹 회원들은 읍살라 시 주최로 연 4~5 회 미팅에 참석하여 주제별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첨단 교통 관리(Cutting-edge mobility management)' 프로젝트는 회원 기관 직원들이 자가용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활동적인 교통 대안을 이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 환산량 350 톤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효율적 플라스틱 조달(Climate-efficient plastic procurement)' 프로젝트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업자 조달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노력입니다. 프로젝트 결과, 기업들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무료 온라인 도구와 안내 자료 등을 제공되었습니다.

'기후친화식품(Climate Tasty)' 프로젝트는 식료품에 기후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탄소 배출 감축에 효과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후의정서는 주요 임무로 프로그램 수행 기간보다 긴, 5 년에 한번 기후행동 로드맵을 공동 제작합니다. 현행 제 3 차 로드맵은 과학 기반 목표와 부유한 도시, 기업, 시민 대상 탄소 예산에 맞춰 전략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행동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차 로드맵의 목표는 연간 탄소배출 10-14% 감축입니다.

## 과제와 성공 요인

기후의정서를 통해 회원 기관들은 기후 목표 달성을 넘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채로운 기관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 변화라는 다면적 도전에 총체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원 기관의 인력 교체가 공조에 차질을 빚기도 하며, 시간의 제약으로 많은 기관들이 기후 관련 협력에 헌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의정서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는 다양한 역량과 관심사를 가진 각 기관이 관련 영역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제별 활동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2 차 기간부터는 3,000 유로 상당의 회원 가입비(비영리기관 면제)를 도입하여 파트너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교훈

지난 십년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 의정서의 발기인이자 동시에 다른 회원 기관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파트너십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3 년 주기의 활동 기간은 파트너십이 주기적으로 낡은 제도를 버리고 새롭게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조를 이어가려면 지속적인 격려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중요한 교훈의 하나입니다.

### 유용한 링크

- ▶ 읍살라 기후의정서 홈페이지: <https://bit.ly/2X27cRo>
- ▶ WWF 사례 연구(2013): <https://bit.ly/3aGfz9q>



### 주요 통계 수치

회원 기관 총 직원 수: 약 **38,000**

읍살라 일터 공유 비율: 약 **35%**

지역 내 총 에너지 소비 중 회원 기관 비율: **30%**



### 프로젝트 재원 조달

- + **재원:**  
회비 및 도시 기여액 \* 3 년
- + **총 사업예산:**  
연 €192,000



### 연락처

프로젝트 관련 문의:

Bjorn Sigurdson, 기후전략가(Climate strategist), 읍살라 [bjorn.sigurdson@ uppsala.se](mailto:bjorn.sigurdson@ uppsala.se)

이 자료는 아시아 국제 도시 협력 (IUC)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연합의 지원으로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